

속 차리자

2월 20일 한국은행은 '최근의 수입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상수지흑자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수입의 과다한 증가가 그 원인이며 여기에 사치성 고급소비재의 수입증가가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외제차 수입이 1년새 378%나 증가했고 골프용품(153%) 음향기기(111%) 담배(51%)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마디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내실보다는 불요불급한 외형증시의 고질적인 병이 도지고 있다.

러서 서민들에게는 김치국 이전에 딱이 우선 준비되어야 한다. 사태가 이렇하더라도 불구하고, 최근 김대중 정부는 이점정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 애국주의나 국수주의에 호소하여 고수소비재의 수입을 억제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이는 경상수지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는데는 기여할지 모르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일시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정책은 국내 대기업의 시장 독점구조를 연장하는 효과에 다를 아니며, 이 효과는 다시 유한계급의 사치성 고급 수입품의 구매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서민들에게는 딱 준비를 점점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정부는 유한계급에게는 김치국을 나눠주고 서민들에게는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거국면은 정부의 결과 귀를 가지고 있다. 일부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시각을 김치국이 나 떡이 아닌 삼계인으로 돌려놓는 일에 열안이다.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일부 몰지각한 유한계급은 삼계인을 터트리고 많은 서민들은 삼계인 터트림만 고대하는 등 김치국부터 마시게 한다.



류승무 (중앙승가대 교수·포교사학회)

“**홍청망청의 결과 IMF 체제'였는데 또 다시 반복하나**”

김영삼 정부시절 너무 일찍 삼계인을 터트린 때가 아직 체 체 르기도 전에 벌써 또 삼계인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보나마나 과시소비와 도덕적 해이가 일상화된 유한계급의 짓 일 것이다. 마침 위정자들에게는 정치적 업적의 과시가 요구되는 선거국면이 아닌가?

최근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공교롭게도 단군 이래 최대의 국치라 일컫는 IMF 체제를 겪기 바로 직전인 1997년 말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과시정치와 과시소비가 만날 때, 1997년 말의 그 내물과 그 밥이 만난 것처럼, 국가의 통제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경상수지와 물가는 불안해지는 등 정치경제적 위기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러할 때 유한계급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김치국이다. 마른 떡을 먹을 때는 김치국이 제격이듯이, IMF를 벗어나려는 징후를 보이는 매일수록 유한계급은 여제된 욕망을 한꺼번에 마구 채우기에 앞서 김치국으로 속부터 차리는 것이 좋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에도, 그러나 떡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남이 삼계인을 터트린다고 혹은 남이 김치국을 먹는다 하고, 김치국부터 마시면 단언지사 속만 쓰릴 뿐이다. 떡을 기다리느라 애간장도 탄다. 여차하면 떡 구경은 못하고 사탕 망상만 키워 고통에 빠질 수도 있다. 따

최근의 경상수지악화 및 실업률 증가 현상을 보면, 이 모두가 부질없는 망상이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수준을 삼계인에서 김치국으로, 그리고 김치국에서 떡 준비로 낮추어 줄 수 있는 지혜가 긴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종교계 특히 불교계가 개입할 여지가 발생한다. 물질의 문제가 곧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 즉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참 주인을 찾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유한계급이든 서민들이든 모두가 자신의 참 주인을 찾지 못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때이다.

“재산모아 이웃에 나누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부자”

부처님 재세시 유명한 부자였던 '마하나미'라는 사람이 있었다. 마하나미는 평생 짜라기밥을 먹고 남루한 배웃만을 입으며 많은 재산을 모은 부자가 됐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닫고 식사를 했던 구두쇠다.

청소년 패션업계 1년 4천억 이익 사회환원 8억뿐

〈본생경〉에는 이런 일화가 있다. 시비라는 나라의 제 추타라는 도시에 산자이라는 왕의 아들 뱃산태 태자는 백성들이 편안하기 위해 아내와 아들을 보시해야 한다는 한 바라문의 말에 기꺼이 따랐다. 바라문은 아내와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만인의 행복을 위해 보시 바라밀을 성취한 태자를 칭송했고, 제추타라는 크게 번성했다.

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실질적 사회환원은 저조한 상태다. 인색한 기부문화는 우리사회에도 만연해 있다. 지난 해말 국제아동기금(UNICEF)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아동기금 국가위원회가 설치된 37개국중 기부금 현황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불우한 이웃을 지원하는 '기부문화'가 결여돼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간혹 재산을 내놓은 사람들도 구멍가게나 김밥집 할머니들이다. 소위 '있는 사람들'은 나눠줄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최근 기부금의 소득공제범위에 대한 논란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화를 다시 생각해 한다. 얼마전 밝혀진 우리나라 청소년 패션업계가 1년에 4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도 사회환원은 겨우 8억원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우리 기업이 마하나미와 닮은꼴임을 잘 보여준다.

한국 기업은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기부를 하고 있다. 98년 전경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기업이 한해동안 세전이익의 9.4%를 기록, 미국 기업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절반 가까이 의료산업에 진출하는 등 재벌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또다른 투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젊은 갑부들은 앞다퉈 자산사업에 나서고 있다. 실리론 벨리에는 현재 675개의 자산사업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비영리 재단의 기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얼마전 빌게이츠와 테드 터너가 제3세계 소아마비 퇴치 비용으로 5천만달러(약 6백억원)와 2천8백만달러를 내놓은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세전 수입의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내놓고 있는 관행, 또 국민의 절반이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럽기만 하다. 이들이 이렇게 사회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뱃산태 태자가 그랬던 것처럼 다수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기꺼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쓰여지면 가치는 배로 늘어난다. 반대로 잘못 쓰면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돈이란 어떻게 모으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마하나미는 결국 그렇게 아끼던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하나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결코 훌륭한 재산가가 아니다. 그는 자기의 재물을 널리 써서 큰 이익을 얻을 줄 모르는 바보요, 재산을 모아 가난한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부자라 할 것이요”라고.

한영우 기자(mwhan@buddhania.com)

회원로 및 각계 대표자



각계 원로 공명선거 촉구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들은 2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지역주의, 금권·탈법선거 극복을 위한 대표자 회의를 갖고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 '세계 최고'

먼지·아황산가스 등 심각한 2006년엔 물부족 국가

몇년 후가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앞으로 길을 다닐 때 마스크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식수도 일주일마다 두 세 번 제한급수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현재와 같이 환경오염과 물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면.

2월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99년 환경통계 국가별 오염물질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황산가스(SO₂)·먼지·이산화질소(NO_x) 등 대기 오염물질의 단위면적당 배출량이 선진국은 물론 현재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했던 멕시코보다 14~20배 가량

시화공단 인근 17개교 소음때문에 '확성기 수업'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 배후에 조성된 시화아파트 단지내 학교 17곳(초등학교 8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3곳)이 차량 소음과 악취, 매연 등 각종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은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학교 앞과 옆으로 6차선 산도르가 지나고 있는 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봄·여름에는 마이크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한 초등학교는 수업시간에 확성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과 관할 안전교육청 등은 아직까지 실태조사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또 단지를 조성한 수자원공사측은 “교육문제와는 관할이 아닌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흥시도 “시화단지는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데다 방음벽 설치 등은 예산이 없어 엄두를 못낸다”며 나몰라라 하는 태도다.

초조달마는 중국에 와서 소림사라는 명찰에 들어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머물면서 벽을 향해 9년간 좌선을 했다. 9년간의 좌선. 그것은 초조달마의 구도열과 소림사라는 환경이 한데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 초조달마가 시화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과연 9년간의 좌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런 곳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교육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교육을 '백년대계'라고도 하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겠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새천년!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온누리 자비 광명(光明)으로 두루하신 부처님! 21세기를 향하여 떠오르는 밝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현대결혼연구원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미래 지향적인 혼인문화를 새로운 각도로 구상하고 이상적인 만남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가피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더 큰 사랑으로 현대를 지켜봐 주십시오

원장 이영숙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了)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골드벨(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드폰 : 018) 277-5592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야 할 가장 귀중한 진품 명품

새로운 천년시대에 경건한 용의 꿈은 천년의 운명을 맑게 깨웁니다.

◎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과 처단) 특별보시!

정음으로 배우는 서예 시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자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인터넷 ◆ http://www.mahamall.com.kr

복사본 및 사용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담당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주) 02) 2242-0331, 2242-0255 (야) 02) 2216-0307, (011) 471-1996

●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藝術文化院 韓國佛敎禪墨家協會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전국 유명 서점 및 불교서점 절찬리 판매중

쉽 없는 수행자의 투명한 감동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면 빗자루 끝에서 생명이 생애는 듯 합니다. 소납은 하루를 시작하면 빗자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빗자루는 나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이 글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교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글자(글)가 없고 담백하고 깔끔한 문장이 읽는 참에 읽힌다. 내 자신도 늘 뒤돌아 보는 바이지만, 출가 수행자에게는 글 쓰는 일이 수행의 한 여가(余技)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의 본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학살한 중도였다. 스스로 깨어있고 이웃을 일깨우는 일이다.

-법정스님 (5월 12일)

혜충스님 지음 / 신국판 / 정가 8,000원 | 부다가야 | 514-024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333-2 전화 (051) 865-4383 · 팩스 865-1821

혜충스님의 중노릇